

'바이올린 소년' 서 지휘자로 돌아오다

김건, 美 오리건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 25년만에 귀국 "클래식음악 시스템 만들고 싶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을 동경했어요. 한국은 뛰어난 음악가분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해 함께 참여를 하고 싶었죠. 이곳에서 제 능력과 기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젊은 지휘자 김건(36)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뒤섞여있다.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던 1991년 11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한 뒤 지휘자가 되어 귀국했다. "음악에 집중을 하느라 한국에 올 겨를이 없었어요."

부모와 미국에 사는 그는 자신의 집안 창원에 머문 채로 서울을 오가며 한국 곳곳을 돌아보고 있다. "한국 드라마, TV 쇼 등을 많이 봐서 낯설지는 않아요. 항상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니다."

음악학원 등을 운영한 부모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네 살 때 피아노를 접한 그는 다른 아이들이 잘 고르지 않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을 본 부모가 이민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새 동지를 틀었다.

커티스 음악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졸업 때 최고의 예술성을 인정받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프리츠 크라이슬러 상'을 받았지만 김건은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지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지휘자는 지휘봉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이올린을 열심히 한 이유는 솔리스트로서 분명히 서야 지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커티스 음악원 재학 당시 바이올린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도서관에 틀어 박혀 살았죠. 계

속 악보를 보고, 음악 이론과 역사 등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 18세에 첫 지휘 기회가 생겼다. 하위 컬리지 서머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를 바이올린 연주자 겸 선생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가 지휘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라고 웃었다.

이후 수많은 지휘자의 어시스턴트를 거치며 지휘자로서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휘자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로린 마젤이다. 2007년께 그가 페스티벌을 열면서 오케스트라 등에 함께 할 젊은 지휘자를 뽑았는데 그가 포함된 것이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보통 사람과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마젤 선생님이 이미 제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전까지 불안했는데 안심이에요."

그러다 2013년 유명 악단인 오리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발탁되면서 지휘자로서 이름을 드높이게 됐다. 미국 서부 지역의 여러 악단 중에서도 역사가 깊은 이 오케스트라는 바로크, 낭만, 현대 등 유연한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건은 100여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30대 아시아인으로서 드물게 이 악단의 지휘봉을 들었다. 최근 이 악단의 포디엄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지난 3년 동안 음악감독을 보좌하며 지휘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했다. "오리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최근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악단이에요. 해마다 레코딩을 할 정도로 연주력도 탄탄하죠."

이후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볼티모어 심포니 등을 객원 지휘한 김건은 여러 악단을 거치면서 음악감독의 자질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우게 됐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없어요. 만약 제가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걸 인종 탓으로 돌리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핑계 거리가 생기니까요. 한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했죠."

3년마다 한번 열리는 '브루노 발터 국제 지휘자 프리뷰'의 올해 행사에서 떠오르는 신진 지휘자로서 미국 전역에 소개되기도 한 김건은 그곳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오케스트라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

았다.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뉴욕시티오페라단을 이끈 데이비드 에프린 등을 사사하는 등 정통 코스를 밟은 그는 '오케스트라의 미래는 움직이는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

"결국 콘서트홀이든, 오케스트라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K팝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인데 K팝처럼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클래식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베토벤의 진리를 알고 잘 해석해도 청중과 교감이 빠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역시 변화가 계속 생기는 클래식음악계에서 그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뉴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8월 넷째 주 개봉영화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구 완산보건소 4층)은 8월 넷째 주 상영작으로 감각적인 영상미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최악의 하루)와 광화문시네마의 세 번째 작품 <범죄의 여왕> 그리고 진실 보도를 위한 뜨거운 열정(트루스)을 상영한다.



<조금만 더 가까이>, <바람의 노래> 등을 연출한 김종관 감독의 신작 <최악의 하루>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하루를 맞은 은희와 은희를 둘러싼 세 남자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예리, 권율, 이희준 등 대세 배우들을 스크린을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상영작이며, 제38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영화 <범죄의 여왕>은 아들이 사는 고시원에서 수도요금 120만원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또 다른 사건을 감지한 '혹' 좋은 아줌마 미경의 활약을 그린 스릴러 작품이다. <1989, 면회>, <족구왕> 등 총무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주목 받고 있는 영화감독인 광화문시네마의 세 번째 작품이며, 광화문시네마의 주축 멤버이자 단련 <더티헤리>, <다문 입술>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되며 두각을 드러낸 이요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관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작 중 하나인 영화 <트루스>는 CBS 시사교양 프로그램 '80분' 메리 메이프스 팀의 부시 대통령 병역비리 보도 실화를 바탕으로 언론인들의 고군부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231-3377. /정해은 기자

36인의 초상을 그린다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전'



작곡의 현대사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의 초상을 담은 미술전이 열린다.

전시에서 작가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구조 내지 충돌, 사회, 정치, 종교, 여성, 인권,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시대의 상흔들을 미술적 언어로 맏자하게 표출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아시아 현대미술의 좌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 2일~11월 27일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아시아 청년 36)을 개최한다.

전북도립미술관 화예연구팀은 "이 전시를 위해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을 탐방해서 청년미술가들을 섭외했고, 그 외에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양근의 뉴 제로 아트 스페이스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며 "작가들

은 소위 서구의 시각에서는 변방으로 분류되는 소수의 청년미술가들로, 총14개국 36인(외국 미술가 21명과 한국 미술가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저마다의 시각으로 예술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한다. 더러는 어둡고,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을 생동감 있는 야성과 변방의 힘으로 표현한다.

미술관은 전시 주제를 별도 정하지 않고 매년 전시 꼭지를 달리해 작품의 화두가 드러나게 전시작을 배치한다. 여기에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그라피티, 퍼포먼스 등이 총망라 돼 있다.

전시관은 청소관리직 7급으로 정년한 위재량의 시를 합합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만든 한국의 영상작품부터, 100일 동안 베이징 거리를 걸으면서 진공청소기로 공기 중의 먼지를 수집 이를

벽돌로 만들고 그것으로 공사현장에서 벽을 쌓는 퍼포먼스 기록을 상영하는 중국의 넷 브러더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적 메시지가 가득 찬 작품들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9월2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무대에서는 김기라의 영상에 나오는 합합 가수들이 공연을 갖으며 무대 주위로는 중국의 작가 투양이 무빙 토퍼포먼스를, 몽골의 작가 영호볼드 그미드시레브는 게르 설치 작품에 머물면서 퍼포먼스를, 한국의 유복연은 관객에게 잔칫날에 걸맞은 국수를 끊어서 대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3일~6일에는 <아시아청년 국제교류 워크숍>이 한옥

마을 내 전주전통문화관과 여사회에서 진행된다. 전시문의 전북도립미술관 화예연구실 063-290-6871. /정해은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8월 '셀 토크'

'웹툰, 차세대 콘텐츠 산업 먹거리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8월 '셀 토크(ce talk)'를 한다.

셀 토크는 인기 웹툰의 영화, 드라마, 뮤지컬로의 원소스 멀티유즈와 뿐만 아니라, 웹툰 서비스 플랫폼의 성장과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K-웹툰의 미래 등을 산업종사자들이 상호 교류하는 자리다.

이날 셀 토크는 '웹툰 전성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 먹거리로'란 주제로 대중문화 트렌드와 연계해 진행된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서비스를 하는 포도트리의 류정혜 마케팅 이사를 비롯해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서현철 총괄 PD, 황남용 재미미디어 대표, 중국진출 K-웹툰 플랫폼인 하오투의 이명진 대표 등이 참여해 웹툰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차세대 산업 먹거리, 웹툰'에 관한 대담도 마련된다. 대담토론은 한정환 세종대 문화애니메이션학과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웹툰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진출방안, 사업기간 상생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나눌 예정이다. /뉴스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4일>

▷쥐띠
4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60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
8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자신의 운이 좋을 때 베풀어야 덕을 쌓는 것임을 잊지 마라.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6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자신만만한 일도 실수 할 수 있는 운.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호랑이띠
50년생: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하라.
62년생: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인해 경쟁구도에 처하게 된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
63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상책이다.
75년생: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금액을 낮춰야 가능할 것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용띠
52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76년생: 분주하고 정신없는 운이다.
88년생: 동기간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뱀띠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을 얻을 수 있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띠
54년생: 너무 강하게 처신하면 적만 만드는 격.
66년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
78년생: 동기간과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되니 재물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니 감안하고 움직여라.
90년생: 좋은 일하고 원인을 들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니 대립하지 말고 무시하라.
79년생: 출행하면 손재수가 따른다.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맞물려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
80년생: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닭띠
57년생: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9년생: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81년생: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

▷개띠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
5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라.
70년생: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한계점에 많은 것을 허려 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나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후반에는 풀린다.
59년생: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풀어라.
71년생: 이동이나 변동수를 가진 운이 좋아진다.
8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운.